

한일 남자 대학생의 부담이 적은 청유행동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정 영 미**

youngmi0425@hotmail.com

〈 目 次 〉

1. 머리말	4. 결과 및 고찰
2. 선행연구	4.1 한일 청유행동의 추출 결과
3. 연구방법	4.2 한일 청유내용에 관한 분석 결과
3.1 분석자료	4.3 담화레벨에서 본 한일 청유행동의 특징
3.2 분석내용	5. 맺음말

Key word : 부담이 적은 청유행동(The behavior of less-burdened invite), 청유내용(The invite contents), 청유담화(The invite discourse), 담화레벨(Discourse level)

1. 머리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중 어떤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고 어떤 사람과는 일회성 만남으로 끝난다. 관계를 유지해 가는 사람과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술자리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행동을 함께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함께 식사할까요?” 또는 “커피 한 잔 하실래요?”와 같은 발화이다. 이러한 발화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1030425)

** 청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화용론

타인과 어떤 행동을 함께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일정이나 장소 등을 교섭하는 발화행위를 통틀어 청유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함께 행동하기’라는 것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구축에 필수적인 언어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청유행동이라고 해도 선호하는 언어전략은 각 문화마다 다를 것이고, 허용되는 언어전략의 범위 또한 다를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이문화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전략은 어휘 선택에서부터 문장 구성, 전개 패턴까지 다양한 레벨의 것이 있는데, 그중 대화 전체의 흐름을 시야에 둔 담화레벨의 전략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 남자 대학생의 담화레벨의 청유전략을 살펴보고 나아가 청유내용의 선택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청유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선행연구

화용론적 관점에서 일본어의 청유에 대해 연구한 것은 ザトラウスキー(1993)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도 청유에 대해 언급한 연구(仁田1989, 樋口1992, 姫野1991 등)는 다수 있지만, 이들은 청유의 기능을 가지는 언어형식에 초점을 둔 것으로 자연대화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청유자와 피청유자의 언어전략, 청유담화의 구조에 관한 연구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청유담화의 구조에 대해 언급한 연구로는 筒井(2002)와 鈴木(2003)가 있다. 筒井(2002)는 청유내용에 따라 청유담화의 구조가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화 당일에 실행에 옮길 예정이거나 습관적인 행동의 청유담화는 <청유-승낙>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갖지만, 미래의 행동일 경우에는 <상담>이라는 발화연쇄가 더해져 <청유-승낙-상담>의 구조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鈴木(2003)는 교육현장에서 언어행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발화레벨, 담화레벨, 언어행동 레벨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두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 청유와 의례적 청유의 구분이 용이해 진다고 설명

하고 있다.

담화레벨에서 한일 청유행동을 분석한 연구에는 鄭榮美(2012)가 있다. 이 연구는 한일 여자 대학생의 부담이 적은 청유행동을 분석하고 있는데, 담화레벨의 고찰을 통해 한국어에서는 일본어에 비해 청유행동 도중에 청유와 관련이 없는 화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에서 남자 대학생을 배제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결과가 여자 대학생들에게 한정된 특징인지 남자 대학생들에게도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인지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鄭榮美(2012)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일 남자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그들이 부담이 적은 청유행동에서 사용하는 담화레벨의 전략을 살펴보겠다.

3. 연구방법

3.1 분석 자료

한국어 대화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의 협력을 얻어 2013년9월부터 2014년 5월에 걸쳐 수록하였고, 일본어 대화는 아이치현(愛知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의 협력을 얻어 2013년 12월에 수록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 각각의 모어화자인 남자 대학생의 부담이 적은 청유행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각 언어별로 동일한 조건에서 대화를 수록하였다¹⁾. 대화 참가자는 동연령 또는 동급생인 동성(남성)의 친한 친구로 설정을 하였고, 한 명의 협력자(제1 협력자)에게 친한 친구와 함께 대화 녹음에 참가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청유내용이 갖는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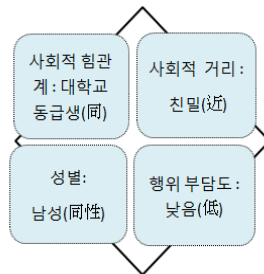


그림1. 대화자료의 조건 통제

1) 대화의 수록의 조건 통제는 鄭榮美(2012:67-68)를 참고로 하였다.

담도를 낮음(低)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제1 협력자에게는 본 대화 녹음에서 <대화 상대와 함께 할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행동2>을 청유하도록 의뢰를 하였고, 다른 한 명의 협력자(제2 협력자)에게는 이와 같은 의뢰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대화 수록이 끝난 후 협력자 간의 친밀도에 관한 인식과 대화의 자연스러움, 청유내용에 대한 부담도 등을 5단계 평가로 조사하였고, 제2 협력자에게 본 녹음에서 청유행동의 의뢰가 있었음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분석 자료의 타당성이 확인된 한일 각 11개 대화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³⁾.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에서 사회적 힘 관계는 대화를 녹음하기 전에 대학의 동급생이라는 조건에 맞추어서 협력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항목은 두지 않았다. 청유행동에 대한 부담도는 청유를 하는 것(청유자 대상)과 청유를 받은 것(피청유자 대상), 청유내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일본어 2개의 대화에서 <(3)대화 녹음이 약간 신경 쓰였다>의 응답이 있었지만, 이 두 대화 모두 녹음이 신경 쓰인 것이 화자의 이야기 스타일이나 대화의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있어서 분석 자료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2) 연구자가 청유내용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청유자에게 맡긴 것은 사람마다 어떤 행동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유내용을 [영화 보기]로 지정했을 경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담도 저(低)>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청유내용의 선택을 대화 참가자에게 맡기면 청유내용은 각각 다를지 몰라도 각 청유내용이 갖는 부담도는 저(低)로 동일하다.
 - 3) 대화 참가자는 언어 별로 22명씩(합 44명)이다. 한국어 모어화자는 1989년~1995년생이고 가장 오래 거주한 거주지로 나누어 보면 서울/경기도가 19명, 강원도가 3명이다. 일본어 모어화자는 1990년~1995년생으로 가장 오래 거주한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愛知県(8명), 岐阜県(4명), 兵庫県(2명), 静岡県(2명), 長野県(1명), 群馬県(1명), 広島県(1명), 三重県(1명), 福井県(1명), 沖縄県(1명)이다.

<표 1> 대화의 자연스러움과 조건통제에 관한 협력자의 인식 조사 결과

범주	질문내용	협력자	한국어	일본어
			평균(SD)	평균(SD)
대화의 자연스 러움	※대화 녹음이 신경 쓰였습니까?	청유자	1.91(0.54)	1.86(0.65)
		피청유자	2.00(1.04)	1.91(0.83)
	※이야기 스타일이 평소와 같았습니까?	청유자	1.73(0.65)	1.55(0.82)
		피청유자	1.67(0.65)	1.64(0.50)
	※대화 흐름이 자연스러웠습니까?	청유자	1.64(0.67)	1.36(0.50)
		피청유자	1.67(0.65)	1.36(0.50)
사회적 거리	※대화 상대와 친합니까?	청유자	1.18(0.40)	1.00(0.00)
		피청유자	1.17(0.39)	1.18(0.41)
청유행 동에 대한 부담도	※청유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까?	청유자	1.27(0.47)	1.18(0.40)
	※청유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까?	피청유자	1.25(0.45)	1.18(0.40)
	※청유내용이 부담스러웠습니까?	청유자	1.18(0.40)	1.36(0.50)
		피청유자	1.17(0.39)	1.18(0.40)

대화 자료의 기본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자료의 기본정보

언어	대화 수	대화 총 시간	1대화 당 평균 소요시간(SD)
한국어	11	4시간41분50초	25분37초(728.93)
일본어	11	5시간08분04초	28분00초(457.20)

한국어 11개 대화의 총 시간은 4시간 41분 50초로 1개 대화 당 평균시간은 25분 37초(SD=728.93)이었다. 일본어 11개 대화의 총 시간은 5시간 8분 4초이었으며 1개 대화 당 평균시간은 28분00초(SD=457)이었다. 대화 별로 청유내용, 각 청유행동에 소요된 시간 등이 다르지만, 이들 청유행동은 본질적으로 <친한 남자 대학생 간에 일어난 부담이 적은 청유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각 대화는 “기본적인 문자화 시스템(BTSJ)”(宇佐美 2007)과 “기본적인 문자화 시스템 : 한국어 시작(試作)판(BTSK)”(宇佐美외 2007)에 따라 전사 자료를 작성하였다.

3.2 분석내용

본고에서는 청유내용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청유내용을 그 실행시기에 따라 분류한다. 대화 녹음 당일에 실행할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은 <즉석형>, 녹음 날 이후에 실행할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은 <미래형>으로 분류한다. 또한 청유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 유무(有無)를 살펴보기 위해 청유자와 피청유자가 사전에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 것은 <정보공유 有>, 주고받은 적이 없는 것은 <정보공유 無>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겠다.

나아가 대화 내용을 분석 단위로서의 담화로 구분하고 청유행동에서 사용되는 담화레벨의 전략에 대해 분석하겠다. 담화는 Halliday and Hasan(1976/安藤他訳1997:2)에 따라 “결속구조와 결속성을 가진 언어표현의 연속체가 의미적 집합체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발화에 의해 구성되는 발화보다 큰 의미적 단위로 간주한다. 이러한 의미적 단위가 청유행동의 성립을 위해 어떤 기능을 가질 때 이를 담화레벨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화 흐름 속에서 각각의 발화를 의미적 집합체로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鄭榮美(2009:29)를 참고로 하여 결속성을 갖는 각각의 발화가 <질문-응답>, <진술-반응>과 같은 상호작용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담화 개시부에서 초출어(初出語), 화제 전환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 전환하려고 하는 화제에 관한 질문 또는 진술 표현 등과 종료부에서 대화 내용에 대한 정리나 평가를 하는 표현, 한정된 반응 등이 있을 때 이를 힌트로 하여 하나의 담화로 규정하겠다.

각각의 담화는 청유발화의 유무와 청유내용과의 관련성⁴⁾ 정도에 따라 <청유담화>, <청유관련담화>, <비(非)청유담화>로 구분하여 코딩한다. 각 담화는 鄭榮美(2012:70-71)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청유담화> : 청유자가 피청유자와 함께 미래의 행동A를 수행할 의도를 가지고 피청유자에게 권하거나, 일정, 장소, 참가자 등에 대해 피청유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발화들의 의미적 집합체로 청유행동의 중심이 되는 청유발화와 그에 대한 피청유자의 응답발화가 존재한다.

4) Leech(1983/池上·河上1987:133)는 어떤 발화가 화자 또는 청자의 대화 목적에 공헌하고 있다면 그 발화는 발화 장면과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비(非)청유담화> : 청유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발화의 의미적 집합체.
 <청유관련담화> : 청유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발화의 의미적 집합체이며 청유행동의 일부분을 구성하지만, 청유발화와 그에 대한 피청유자의 응답발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유담화>와 구분된다. <청유담화>와는 <비(非)청유담화>를 사이에 두고 있다.

대화에서 각 담화를 구분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화예1>에서 일어난 청유내용은 JM09가 JM10에게 정월 초 백화점에서 신년세일을 할 때 함께 쇼핑을 가자는 것이다. JM09는 “買い物に行かん?、「友人03の愛称」とかと、3人ぐらいで(청유발화)라고 다른 친구도 함께 쇼핑을 가자고 권하고 있으며, JM10은 JM09의 말이 끝나기 전에 “いいよ”(응답발화)라고 수락 의사를 전하고 있다. 이 두 개의 발화를 중심으로 <청유담화>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청유담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발화는 청유발화와와의 관련성을 근거로 유추하면 발화7이 된다. JM09와 JM10은 발화7에 선행하는 대화에서 신년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JM09가 우선 “ねえ”하고 JM10의 주목을 끌고 선행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初売り”라는 초출어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初売り”와 관련이 있는 어휘들(パルコ、買い物、ニット、モッズコート、コーデロイ 등)이 관련 범주를 확장시켜가며 언급되고 있고 이들은 결속성을 갖고 있어 하나의 담화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청유담화는 JM09가 영어 리포트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난다. 영어 리포트나 그 이후의 디즈니랜드 방문에 관한 이야기는 청유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비청유담화>로 간주한다.

발화35에서 JM09는 “行くなら早いうち行きたいなあ”하고 쇼핑을 가는 시기에 대해 언급을 하고 그 이후에 함께 갈 제 3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발화35부터는 청유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청유발화와 그에 대한 응답발화가 없으므로 <청유관련담화>로 간주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각 대화 자료에서 <청유담화>, <청유관련담화>, <비청유담화>를 추출하여 담화레벨의 청유 전략을 살펴보겠다.

[대화예 1] <청유담화>, <청유관련담화>, <비청유담화>의 구분

화자	발화내용	담화구분	
(대화 개시부터 약 12분 50초간의 대화 생략)			
1 JM09	クラスの新年会いつだけ?[ダイアリーを捲りながら].	비청유 담화	
2 JM10	クラスの新年会は、確かー、		
3 JM09	11か、10、10か。		
4 JM10	10じゃなかった?。		
5 JM10	1少し間/いいよな、リア充。		
6 JM10	紹介しろよ、俺に。		
(약 15초간의 대화 생략)			
7 JM09	ねえ、 初売り やってるよね、10とかも。	청유 담화 (소평 하기)	
8 JM10	あー、やってんじゃねえ[↑].		
9 JM09	パルコ 安くなるよね。		
10 JM10	多分。		
11 JM09	買い物 行かん?、		
12 JM10	行く?。		
13 JM09	「友人03の愛称」 とかと、		
14 JM10	いいよ。→ 응답발화		
15 JM09	3人 ぐらいで。→ 청유발화		
16 JM09	行きたいんだけど。		
17 JM09	ニット欲しいんだって。		
18 JM10	ニットいいなあ。		
19 JM09	「JM10의 아다名」 モッズコートか、買ったらいんじゃない?。		
(약 3분간의 대화 생략)			
20 JM09	行くとしたら、あんま遅かったらテストあるしな。		
21 JM10	そっか、確かに。		
(약 3분간의 대화 생략)			
22 JM09	ウェー—[3秒間驚いて悲鳴を上げる]、英語中級の直しせんと。		비청유 담화
23 JM09	忘れとったー。		
24 JM09	<やばい>{<}.		
25 JM10	<俺>{>}これ終わったら行く。		
26 JM09	中級?。		
(약 3분간의 대화 생략)			
27 JM10	デズ二ーか。		
28 JM09	そう、こっち帰って来るの10時とかだもん。		
29 JM10	<いいやねえか>{<}.		

- 30 JM09 <10時半か>{>}。
 31 JM10 お前、十分いいよ。
 32 JM10 =お前こっちなんか来んな、来んな、シッシ[追い払うような感じで]。
 33 JM10 リア充、シッシ、爆発しろ、くそやろう、本当に(<笑い>)。
 34 JM10 いやー、まじかー。
 35 JM09 行くなら早いうち行きたいなあ。 청유관
 36 JM10 うん?。 런담화
 37 JM09 [ダイヤリーを捲りながら]新年会の前とかか[→]。
 38 JM09 まじで行かん?。
 39 JM09 「友人03の愛称」、「友人03の愛称」も誘ってみよう、じゃ。
 40 JM10 おう。

4. 결과 및 고찰

4.1 청유행동의 추출 결과

한국어 11개 대화에서 합 24개의 청유행동이 일어났고 일본어 11개 대화에서 합 20개의 청유행동이 일어났다. 한 개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청유행동의 평균 발생률은 한국어 2.18개, 일본어 1.82개로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 청유내용은 쇼핑, 운동, 식사, 여행 등으로 다양하고 청유행동 개시부터 종료까지 걸리는 시간도 달랐다. 각 청유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어와 일본어의 청유내용⁵⁾

청유행동	청유내용	청유행동	청유내용
<청유KA>	술 마시기	<청유JA>	쇼핑가기
<청유KB>	축구 연습하기	<청유JB>	졸업여행가기
<청유KC>	녹음 후 밥 먹기	<청유JC>	크리스마스 때 놀기
<청유KD>	여자 친구와 함께 놀러가기	<청유JD>	라이브 공연에 가기 전에 저녁 먹기
<청유KE>	주말에 만나 놀기	<청유JE>	대화 녹음 후 青春18표 를 사러 가기
<청유KF>	시내 나가기	<청유JF>	라면 먹으러 가기

5) 한국어 청유행동은 <청유KA>부터 <청유KX>까지, 일본어 청유행동은 <청유JA>부터 <청유JT>까지 기호를 붙인다.

<청유KG>	녹음 후 밥 먹기	<청유JG>	크리스마스 때 나베 파티하기
<청유KH>	클럽가기	<청유JH>	스터디하기
<청유KI>	녹음 후 밥 먹기	<청유JI>	쇼핑하기
<청유KJ>	녹음 후 밥 먹기	<청유JJ>	번화가에서 놀기
<청유KK>	번지점프하러 가기	<청유JK>	배드민턴하기
<청유KL>	클럽가기	<청유JL>	배구하기
<청유KM>	자전거 타기	<청유JM>	동문회에 참가하기
<청유KN>	동기모임 참석하기	<청유JN>	쇼핑하기
<청유KO>	계절학기 수업 듣기	<청유JO>	여행하기
<청유KP>	녹음 후 카페가기	<청유JP>	연말에 함께 놀기
<청유KQ>	서점가기	<청유JQ>	新潟여행하기
<청유KR>	책 고른 후 저녁 먹기	<청유JR>	스터디하기
<청유KS>	KM18집에서 자기	<청유JS>	해외여행하기
<청유KT>	축구보고 점심 먹기	<청유JT>	온천여행하기
<청유KU>	생일파티 준비하기		
<청유KV>	연휴 때 놀러가기		
<청유KW>	계곡가기		
<청유KX>	커피숍 가기		

청유행동을 소요된 시간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어에서는 1분미만이 10개(41.67%), 1분에서 5분미만이 8개(33.33%)로 전체 24개의 청유행동 중 75%(18개)가 5분미만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일본어에서는 1분미만이 3개(15.00%), 1분에서 5분미만이 7개(35.00%)로 전체 20개 중 50%(10개)가 5분미만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위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청유행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짧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2 청유내용에 관한 분석결과 및 고찰

4.2.1 청유내용의 실행시기에 따른 분석결과 및 고찰

청유내용의 실행시기와 정보공유 유무에 따라 청유행동을 구분하였다. 우선 실행시기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겠다. 녹음을 한 당일에 실행에 옮길 예정인 <즉석형>과 당일이 아닌 미래에 실행에 옮길 예정인 <미래형>의 분석결과를 결과를 보면, 한국어에서 <즉석형>은 7개로 29.17%이었고 <미래형>은 17개로 70.83%이었다. 일본어에서 <즉석형>은 3개로 15.00%이었고 <미래형>은 17개로 85.00%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일 모두 <즉석형>보다는 <미래형>을 선호하지만, 한국어에서 일본어보다 <즉석형>의 청유행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석형>의 청유행동은 대화 녹음이 끝난 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피청유자에게는 일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미래형>보다 피청유자의 소극적 욕구(negative face)⁶⁾를 침해할 위험도가 높은 것이다. 한국어에서 <즉석형>은 [대화예2]처럼 일정을 교섭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일어났다(<청유KC>, <청유KF>, <청유KI>, <청유KJ>, <청유KP>, <청유KU>). 교섭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미래형>의 청유내용이었다. 한편 일본어에서는 일정 교섭이 필요없는 <즉석형>은 <청유JE>와 <청유JJ>뿐이었고, <청유JF>는 예전에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는 내용을 오늘 실행에 옮기도록 청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즉석형>의 청유를 할 경우에는 일정 선택권 유무에 따른 소극적 욕구(negative face)의 침해 위험도를 사전에 봉쇄하여 침해도가 낮은 안전한 청유내용을 선택하고, 일본어에서는 <즉석형>의 청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청유가 갖는 상대의 소극적 욕구(negative face)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대화예 2] <즉석형>의 청유행동

화자	발화내용	담화구분
(대화 개시부터 약 2분44초간의 대화 생략)		
1 KM10	그래서 막 나오는 거 되게 막 멋있는 데 많단 말이야.	비청유
2 KM10	=그러면 메모장 열어가지고 이렇게 막가고 싶은 곳을 막 가서 【	담화
3 KM09	】야,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언제 가냐?	
4 KM10	응?	
5 KM09	군대 가기 전에.	
6 KM09	그, 야, 씨, 좇나 배고파.	청유담
7 KM10	<약간웃음>그러니까 나 아까 도서관에서 앉아 있는데 좇나 꼬르 룩 거려 가지고	화 (녹음 후 밥먹기)
8 KM09	그러니까, 우리 친구01,도, 5시부터잖아?	
9 KM09	이거, 이거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 → 청유발화	
10 KM10	아, 맞아. → 응답발화	
11 KM09	밥 먹고, (응) 와서 식, 식, 식권.	

6) 소극적 욕구(negative face): 자신의 행동을 타인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욕구(Brown and Levinson(1987)/田中외음김(2011:80))

4.2.2 청유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유무에 따른 분석결과 및 고찰

다음으로 청유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유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겠다. 이미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는 청유내용을 선택한 청유행동은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높은 비율(한국어:33.33%, 일본어:45.00%)을 차지했고,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는 새로운 청유내용을 선택한 것은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높은 비율(한국어:66.67%, 일본어:55.00%)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화예1]과 [대화예2]는 정보공유가 없었던 청유내용이고 [대화예3]은 정보공유가 있었던 청유내용이다. 청유 전에 청유내용에 대해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청유행동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피청유자의 소극적 욕구(negative face)에 대한 침해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 4> 청유내용의 정보 공유 유무에 따른 분류

	정보 공유 有(%)	정보 공유 無(%)	합(%)
한국어	8(33.33)	16(66.67)	24(100.00)
일본어	9(45.00)	11(55.00)	20(100.00)

JM13은 청유하기에 앞서 우선 JM14에게 동문회에 참석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JM14의 의증을 파악한 뒤 “今度一緒に行ってみる?”라고 함께 참석할 것을 청유하고 있다. JM13은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유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 확인 후 청유를 하는 패턴은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는 다른 청유행동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대화예 3] 정보 공유가 있었던 청유내용

화자	발화내용	담화구분
(대화개시부터 1분45초까지의 대화 생략)		
1 JM13	OB会は行く? → 확인발화	청유
2 JM14	それ、迷いどころやね。	담화
3 JM13	そう、ちょっとね、俺も迷っとるやんて。	(동문회 참가하기)
(4부터 23번까지의 발화 생략)		
24 JM14	=だから、俺らが勝手に内輪に固まっとかんければ(ああ)、まあ、ある程度いいっかも知れんけど(ああ)、ほんな分かんないよね。	

- 25 JM13 そやんね。
- 26 JM14 で、なんか、それが、“もし行かないんだったら、その4年生4人いるから(ああ4年生に聞いてもいいよ)”って言われたけど、実際結構、き、聞きにくくねえ?。
- 27 JM13 でも、そやね、「先輩01の苗字」さんやったら、まだ、何とか話してくれそうやから、今度一緒に行ってみる?。 → 청유발화

4.3 담화레벨에서 본 한일 청유행동의 특징

한일 대화 자료를 발화 간의 결속성을 근거로 청유담화, 청유관련담화, 비청유담화로 나누어 추출한 결과 한국어에서는 합 24개의 <청유담화>와 합 13개의 청유관련담화, 합 42개의 비청유담화가 있었다. 일본어에서는 합 20개의 청유담화와 합 20개의 청유관련담화, 합 44개의 비청유담화가 있었다. 청유담화는 청유발화를 핵으로 한 연속적 발화의 집합체이므로 청유행동 수와 청유담화 수는 동일하다. 청유관련담화가 있다는 것은 청유행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유와 관련성이 없는 화제가 삽입되어 청유행동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개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청유행동을 청유담화만으로 구성된 것과 청유담화와 청유관련담화로 구성된 것으로 구분하면 한국어에서는 24개의 청유행동 중 15개(62.50%)의 청유행동이 청유담화만으로 구성되었고 9개(37.50%)의 청유행동은 청유담화와 1개 이상의 청유관련담화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일본어에서는 청유담화만으로 구성된 청유행동과 청유담화와 1개 이상의 청유관련담화로 구성된 청유행동이 50%씩 반반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본 자료의 한국어에서는 일본어에서보다 청유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중에 청유내용과 관련이 없는 화제를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대화 전체의 담화전개 양상을 정리한 <표5>와 <표6>을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청유관련담화가 있는 청유행동이 한국어에서 9개, 일본어에서 10개이었는데, 그중 한국어에서는 2개 이상의 청유관련담화를 가지고 있는 청유행동이 3개(33.33%)이었고, 일본어에서는 6개(60.00%)이었다. 한국어에서는 청유행동 도중에 청유와 관련 없는 화제의 도입이 있었다고 해도 그 수를 최소화 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에서 일본어보다 청유행동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은 한국어에서 청유관련담화가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한국어 대화에서의 담화 전개 양상

대화번호7)	담화전개
<대화K1>	비청유담화-[KA청유담화]-비청유담화-KA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KA청유관련담화(2)-비청유담화-KA청유관련담화(3)-비청유담화
<대화K2>	비청유담화-[KB청유담화]-비청유담화-[KC청유담화]-비청유담화-[KD청유담화]-비청유담화-[KE청유담화]-비청유담화-KE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
<대화K3>	비청유담화-[KF청유담화]-[KG청유담화]-비청유담화-KG청유관련담화(1)
<대화K4>	비청유담화-[KH청유담화]-비청유담화-[KI청유담화]-비청유담화
<대화K5>	비청유담화-[KJ청유담화]-비청유담화-[KK청유담화]-비청유담화-KK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KK청유관련담화(2)-비청유담화-KJ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
<대화K6>	비청유담화-[KL청유담화]-비청유담화
<대화K7>	[KM청유담화]-비청유담화-KM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KM청유관련담화(2)-비청유담화
<대화K8>	비청유담화-[KN청유담화]-비청유담화-[KO청유담화]-비청유담화-[KP청유담화]-비청유담화
<대화K9>	비청유담화-[KQ청유담화]-비청유담화-[KR청유담화]-비청유담화-KR청유관련담화(1)-[KS청유담화]-비청유담화
<대화K10>	비청유담화-[KT청유담화]-비청유담화-[KU청유담화]-비청유담화-KU청유관련담화(1)
<대화K11>	비청유담화-[KV청유담화]-[KW청유담화]-비청유담화-KV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KX청유담화]-비청유담화

<표 6> 일본어 대화에서의 담화 전개

대화번호	담화전개
<대화J1>	비청유담화-[JA청유담화]-[JB청유담화]-비청유담화-JB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JB청유관련담화(2)-비청유담화-JA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JA청유관련담화(2)-비청유담화
<대화J2>	비청유담화-[JC청유담화]-비청유담화-JC청유관련담화(1)-[JD청유담화]-JC청유관련담화(2)-비청유담화-[JE청유담화]-비청유담화-JC청유관련담화(3)-비청유담화
<대화J3>	비청유담화-[JF청유담화]-[JG청유담화]-비청유담화
<대화J4>	비청유담화-[JH청유담화]-비청유담화

7) <표 5>과 <표 6>에서 KA, JA와 같은 표기는 <표 3>에서 설명한 청유행동의 일련번호이고 [KA청유담화]는 청유행동<청유KA>의 청유담화를 의미하며 KA청유관련담화(1), (2)는 <청유KA>와 관련된 청유관련담화를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 것이다.

<대화J5>	비청유담화-JI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JI청유담화]-비청유담화-JI청유관련담화(2)-비청유담화-JI청유관련담화(3)-비청유담화-JI청유관련담화(4)-비청유담화-[JJ청유담화]-JI청유관련담화(5)-비청유담화
<대화J6>	비청유담화-[JL청유담화]-[JK청유담화]-비청유담화-JK청유관련담화(1)-JL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
<대화J7>	비청유담화-[JM청유담화]-비청유담화-[JN청유담화]-비청유담화
<대화J8>	비청유담화-[JO청유담화]-비청유담화-JO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JO청유관련담화(2)-비청유담화
<대화J9>	비청유담화-[JP청유담화]-비청유담화-JP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
<대화J10>	비청유담화-[JQ청유담화]-비청유담화-JQ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JR청유담화]-비청유담화-[JS청유담화]-비청유담화
<대화J11>	비청유담화-[JT청유담화]-비청유담화-JT청유관련담화(1)-비청유담화-JT청유관련담화(2)-비청유담화

한국어에서 청유관련담화가 있는 9개의 청유행동을 살펴보면 [대화예4]처럼 피청유자가 청유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나 부정적 정보를 포함한 경우가 많았다(5개의 청유행동). 그리고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청유내용의 확인을 위한 것이 2개, 긍정적 반응을 보여 교섭을 위한 것이 2개 있었다. 예를 들면 [대화예4]에서 KM01은 KM02가 예전에 여자 친구 몰래 술을 마시자고 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술 마시기를 청하고 있다. 이에 KM02는 “무슨 술을 먹어”하며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리하여 KM01은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둘에게는 시간이 그다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함께 술 마실 것을 다시 청한다. 이후의 대화에서는 청유와 관련없는 이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일정과 만나는 장소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대화예 4] 피청유자의 부정적 반응이 있는 청유담화

번호	화자	발화내용	담화
1	KM01	맨날, 야, 지겹잖대[강조하듯이], 지겨워.	비청유담
2	KM02	만나서 좀 공부 좀 하고 싶어.	화
3	KM01	야, 그거 말고,	KA
4	KM02	그렇지.	청유담화
5	KM01	「KM02의 여자친구에칭」속여서 언제 한 번 술 마시자며<웃음>→ 청유발화	
6	KM02	<약간 웃으면서>무슨 술을 먹어. → 응답발화(부정적)	
7	KM02	다 걸려, 다, 그게 다, 야, 다 알게 돼.	
8	KM01	아니, 야, 그래두 우리 이제 별로, 없어, 기간이 이제.	

반면 일본어에서는 10개중 9개의 청유행동이 모두 긍정적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청유담화에서 수락이 있고 청유관련담화에서는 일정이나 참가자, 장소 등의 교섭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한국어에서는 일본어에 비해 청유행동 도중에 청유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청유자의 부정적 견해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내용확인, 일정이나 참가자 등의 교섭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일본어에서는 청유담화에서 수락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구체적 일정이나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해 중단된 청유행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한일 남자대학생의 부담이 적은 청유행동을 대화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한일 남자 대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부담없이 청하는 청유내용을 알 수 있었다. 청유내용을 선택할 때 한국어에서는 일본어 보다 대화 당일 실행에 옮기는 행동도 부담없이 청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일 모두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는 내용을 부담없이 청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러한 경향은 한국어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는 일본어에서 한국어보다 청유자와 피청유자가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담화레벨에서 청유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어에서는 일본어에 비해 청유행동 도중에 청유와 관련이 화제를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며, 청유내용에 대한 피청유자의 부정적 반응이 있을 때 담화레벨의 전략으로서 청유내용과 관련없는 화제를 삽입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유내용과 담화레벨의 청유행동에 초점을 두어 한일 남자대학생의 부담이 적은 청유행동의 특징 일부분을 밝혔다. 금후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발화레벨의 청유행동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고찰 결과를 보완시키고자 한다.

[기호범례]

[]: 부가 정보 / 초: 침묵 시간, [↑]: 상승 억양, ?: 의문, 「 」: 고유명사
 < > { } < > { } : 겹침, = =: 상대적으로 시간적 간격이 짧음, …: 말끝 흐림, < >: 웃음,
 (): 맞장구, 【 【: 발화 중단, 】 】: 발화 삽입

<參考文獻>

- 宇佐美まゆみ(2007) 「改訂版: 基本的な文字化の原則(Basic Transcription System for Japanese: BTSJ)2007年3月31日改訂版」 『談話研究と日本語教育の有機的統合のための基礎的研究とマルチメディア教材の試作』 平成15-1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2)(課題番号15320064)(研究代表者: 宇佐美まゆみ) 研究成果報告書, pp.17-69
- 宇佐美まゆみ他(2007) 「基本的な文字化の原則(Basic Transcription System for Japanese: BTSJ)の韓国語への応用について」 『談話研究と日本語教育の有機的統合のための基礎的研究とマルチメディア教材の試作』 平成15-18年度 科学研究費補助金 基盤研究B(2)(課題番号15320064)(研究代表者: 宇佐美まゆみ) 研究成果報告書 pp.48-82
- ザトラウスキー・ポリー(1993) 『日本語の談話の構造分析-勧誘のストラテジーの考察』 くろしお出版.
- 鈴木睦(2003)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からみた勧誘のしくみ-日本語教育の視点から-」 『社会言語科学』6-1, 社会言語科学, pp.112-121.
- 鄭榮美(2009) 「話題導入ストラテジーの韓日対照研究」 『日本文化学報』42, 韓国日本文化学会, p.29.
- _____ (2012) 「談話レベルで見た誘い行動の韓日対照研究-親しい友人間の会話をを用いて-」 『日本文化学報』53, pp.67-68, pp.70-71..
- 筒井佐代(2002) 「会話の構造分析と会話教育」 『日本語日本文化研究』12, 大阪外国語大学日本語講座, pp.9-21.
- 仁田義雄(1989) 「『行こうか戻ろうか』をめぐって」 『日本語学』, 明治書院, pp.57-69.
- 樋口文彦(1992) 「勧誘文-しよう、しましよう-」 『言語学研究会の論文集・その5 ことばの科学』5, むぎ書房, 言語学研究会編集, pp.175-186.
- 姫野伴子(1991) 「依頼と勧誘-受諾者表現の日英対照を中心に-」 『世界の日本語教育』1, 国際交流基金日本語国際センター, pp.69-81.
- Brown and Levinson(1987) Politeness-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田中典子他(2011) 『ポライトネス-言語使用における, ある普遍現象』 研究社, p.80.
- Halliday and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Longman. (安藤貞雄他訳(1997) 『テキストはどのように構成されるか』 ひつじ書房.) p.2.

Leech, G.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Lonman (池上嘉彦他訳(1987) 『語用論』 紀伊国屋書店) p.133.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A pragmatic study on the behavior of less-burdened invite
in the Korean and Japanese male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versation on the behavior of less-burdened invite, and find out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from the recordings of the casual conversation between the close friends of Korean and Japanese male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11 recordings by each language, 4 hours 41 minutes 50 seconds for Korean and 5 hours 8 minutes 4 seconds for Japanese, in total. 24 times and 20 times of invites occurred during the conversations in Korean and Japanese subjects, respectively.

Upon the analysis results of invite contents, Koreans showed tendency of invite on the same date of conversation without any burden compared to Japanese. In addition, both showed the tendencies of new things invites which had not been discussed without any burden, more remarkable in Korean language.

From the review of invite behavior on discourse level, we found that Korean did not prefer introducing irrelevant topics of the invite during the conversation compared to Japanese. In case of negative response from the other party on the invite, Korean tried to introduce irrelevant topics as a strategy of discourse level so as to change it into the positive ones. On the other hand, Japanese suggested that they introduced irrelevant topics of invite in order to delay the speed of invite behavior process before setting the concrete dates and places after the acceptance of invite.